

대학 문화, 이대로 좋은가?

정 현 백 |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나는 주말이면 학교 연구실에서 일하기를 좋아한다. 마치 여왕이 된 기분이다. 고대광실이 부럽지 않다. 북적거리고 소음으로 떠내려가는 대학이 오랜만에 정적을 찾는 것도 즐겁고, 또한 방해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좋다. 그러나 청소부 아주머니가 오지 않는 주말의 학교는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도저히 지저분해진 화장실을 볼 수가 없어서, 얼기설기 치워 보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주말이면 내가 즐기곤 하는 마음의 평화를 깨는 일들이다. 대학에 있는 이들이면, 대학 캠퍼스의 지저분함과 소음에는 전부 이력이 났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매너가 없다. 그러나 이들을 원망할 일은 아니다. 어른들이 매너가 있지도 않으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대학생들에게는 문화가 없다. 대학의 축제 문화를 돌아보자. 우선 축제 기간이 너무나 길다. 작년 우리 대학의 축제는 기성 세대인 나에게서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고성인 록 음악과 주점 운영으로 끝났다. 모든 과가 다투어 주점을 차렸기 때문에, 교내에는 거의 20개 가량의 주점이 난무하고, 축제가 끝난 다음 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구호에 따르자면 '민중' 입에 틀림없는 청소부 아주머니는 태산 같이 쌓인 음식 쓰레기를 치우느라 허리가 휘어졌고, 학교 캠퍼스에서는 거의 3~4일 동안 막걸리 냄새가 묻어 났다. 사회 문제나 한국사 등에 대한 학술 대회는 어느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물론 '등록금

투쟁' 직후여서 준비의 여력이 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 문화의 척박함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대학생이 스스로의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 그저 대학은 상업적인 대중 문화에 떠내려가고 있다. 학교 앞에 넘쳐 나는 옷가게, 비디오방, 노래방 그리고 술집이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축제에 등장하는 단골 프로그램 중 내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물 풍선 던지기'이다. 판자를 사람의 머리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은 후, 거기에 한 학생이 머리를 내민 채 서 있도록 한다. 그리고 물을 채운 풍선을 던져 머리를 맞추는 놀이이다. 물 풍선이 머리를 맞힌 후 터지면, '와' 하는 환호성이 들린다. 그나마 돈을 내야 풍선을 던질 수 있다. 이는 대학생 축제 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놀이 문화는 군사주의 문화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랴. 소주 한 병을 단숨에 들여 마시는 '원샷' 문화도 이런 군사주의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어디, 대학에 문화만 없는가? 대학에는 질서도 없다. 학생들이 어질러 놓은 종이컵과 휴지로 학교는 넘친다. 강의에는, 심할 때는 1/3 이상의 학생들이 지각한다. 엘리베이터는 끊임없이 고장이 나고, 새로 지은 건물은 1년이 가지 않아, 벽에 찍어 놓은 신발 자국, 벗겨진 칠 자국 그리고 지저분한 낙서로 더럽혀진다.

외국 대학의 경우를 보면, 우선 학생회를 중심으로 환경 운동에 적극적이다. 독일 학생들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머그컵을 책가방 끝에 매달고 다닌다. 학교에서는 일체 일회용 컵이나 캔을 쓰지 않고, 콜라나 사이다의 경우에도 병으로 마신 후, 그 병을 한쪽 벽에 층층으로 세워 둔 플라스틱 박스에 꽂아야 한다. 학교의 모든 화장지는 재생 용지이고, 학내 복사점이나 학교 공문의 경우 재생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는 늘상 깨끗하고, 정갈하다. 우리 학생들처럼 복도에서 고성을 질러 대지도 않는다. 엘리베이터나 건물 외벽에 정치 슬로건을 선전하기 위한 낙서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건물 안은 깨끗한 편이다. 학내 매점이나 우체국에서 일을 보고 있는 중인데, 내 머리 위로 다른 손이 올라와 새치기를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축제는 1년에 한 번 열리지만, 단 하루 개최되고, 그것도 오후에서 밤까지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날 하루는 모두 즐겁게 지낸다. 방학 중 외국을 나갈 때마다 나는 대학 캠퍼스에서 느껴지는 평화를 즐긴다. 우리 대학의 일상 생활에서 오는 피곤함과 전투성을 잊어도 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의 일상적 삶이 일종의 전투인 만큼, 대학 내에서만이라도 평화를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나 왜 우리 대학에서는 이것의 실현이 어려울까?

나의 대학 시절은 군부 독재에 대한 투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두운 기억들로 가득차 있다. '대학에서의 일상적인 평화'는 어차피 우리의 현실에 비해 사치스러운 요구였다. 그래서 때로는 '교수님에 대한 예의', '학교 내에서의 청결' 등으로 주의를 주는 교수님을 보면, 우리는 그를 '허무주의자'로 지칭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이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는데, 사소한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그야말로 '허무주의자'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 후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도 이제 교수가

되었고, 학생들한테 매너가 없다든가, 화장실을 깨끗이 쓰라는 등의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이제 나도 허무주의자가 되고 말았는가? 나는 '아니다'라고 답하고 싶다. 우리 시대는 이제 다른 과제들을 안게 되었다.

노버트 엘리아스는 그의 책 「매너의 역사」에서 17세기 이래 궁정을 중심으로 매너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때까지의 야만적인 삶을 청산하고 체계적으로 매너를 가르치는 것이 궁정 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런 과정은 이후 시민 계급의 등장과 그들의 생활 윤리를 통해서 중산층 사이에 뿌리내리게 된다. 시민 계급에게 금욕, 절제, 검약, 근면 등의 덕목과 함께 생활의 합리적인 조직화가 강조되면서, 동시에 '체통(respectability)'은 시민 계급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더불어서 시민 계급의 가정 이데올로기와 함께 가정이 한편으로 생활 방식과 매너를 가르쳤다면, 다른 한편으로 학교와 교회 그리고 군대도 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노동 운동도 이에 못지 않게 하층 계급에게 근대적 인간에 필요한 교양과 매너를 내면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노동 운동 내에서 노동자 문화 운동이 활발했던 사실, 사회민주당의 내부 문화가 얼마나 교전적인 취향을 지녔는지 그리고 노동 운동에 대한 사료 가운데 도처에서 발견되는 노동 계급의 '체통'에 대한 강조 등이 바로 앞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좋은 근거가 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세기 말, 20세기 초 활발했던 노동자 합창단, 노동자 여행 서클, 노동자 에스페란토 연맹, 노동자 연극 운동, 노동자 영화 운동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층을 근대적인 시민으로 키우는 동력을 발견한다.

물론 이런 근대적인 '길들임' 혹은 '훈육'의 과정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푸코는 그의 책

「감시와 처벌」을 통하여, 근대적인 인간이 이렇게 특정한 가치에 훈육되고, 길들여졌음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런 탈근대적인 문제 제기들은 우리가 경청할 만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지만, 역시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근대성을 획득하는 단계를 완결시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서양 근대가 달성한 이중의 혁명 즉, 산업 혁명과 민주주의 혁명 중 전자만을 완성한 셈이라 평가하고 싶고, 이제라도 나머지 과제를 천착하고 해결해야 할 당위성을 제기하고 싶다. 우리의 민주주의 혁명은 이제 간신히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형식적 민주주의를 완성한 단계에 불과하다. 일상 생활 속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보다 내실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과 밀접한 연결을 지녔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일상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바로 엄격한 생활 윤리와 매너를 갖춘 근대적 시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권리와 의무를 구별할 줄 아는 인간 즉, 민주적인 인간이 탄생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렵다. 대학에서의 무질서와 매너 결여를 '미완의 민주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우리가 당연한 거대한 모순 덩어리의 일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거리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전투를 치르고 산다. 우체국에서, 택시 안에서, 시장에서, 지하철에서... 이런 일상의 비평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바꾸어 가려는 노력이 서서히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런 생활의 혁명은 우선 대학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등록금 2, 3만 원을 인하기 위하여, 대학 본부를 한 달 이상 점거하는 행위, 자신들의 축제를 위해서 전 캠퍼스의 구성원이 소음으로 인해 제대로 강의를 듣지 못하거나 연구에 지장이 있어도 개의치

않는 태도, 학생들에게 교수들이 내뱉는 반말들, 대자보를 통해 행사되는 언어 폭력들, 도처에 버려진 캔 강통과 종이컵들, 단 5분을 걸기 싫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좁은 통로에 주차하는 행위들... 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대학을 회구한다.

그러나 이런 대학의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의 구성원인 우리는 대학의 일상이 얼마나 비평화적인가에 대한 공동의 자각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에게도 우리 일상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야 한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대학의 일상과 문화를 바꾸려는 교수들의 노력이 선행되는 것인데, 이는 피곤한 실랑이로 점철될 수도 있다. 연구에 바쁜 대학 교수들에게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 문화나 일상은 이미 위험한 수준에 왔다. 일일이 일상적인 작은 행위를 지나치지 않고, 문제 제기하고, 시정을 지켜보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는 물론 한두 교수의 노력으로 되기도 힘들다. 전 교수들이 대학에서의 '평화 만들기'를 위해 합심해야 한다. 대학의 일상적인 비평화를 사소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바로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민주주의는 시작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안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서클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한 감독 기능만이 아니라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현백**

정현백

서울대 역사교육과 및 동대학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북홀(Bochum)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한국서양사학회 총무이사,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노동 운동과 노동자 문화」 등이 있고, 번역서로 「페미니스트」 등이 있다.